

일본술 지리적표시 적극 활용으로 수출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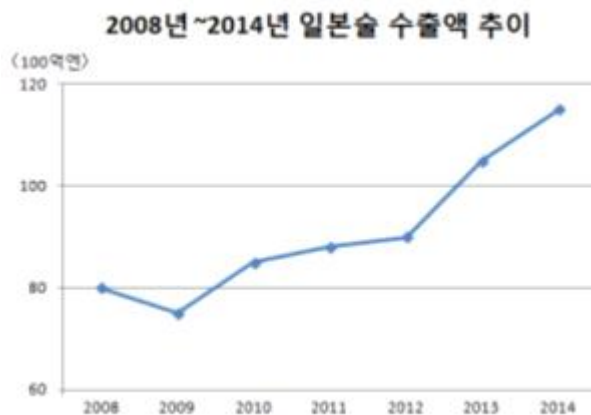
일본 정부는 일본술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협정 결과, 수출상대국의 관세가 철폐되고,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일본술의 명칭을 보호하기로 결정되었다. 일본술의 수출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,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규모가 작고 보급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. 국내외의 이벤트를 통해 일본술의 특성과 매력을 발신하고 지리적표시(GI)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 예정이다.

■ 일본 정부 지리적표시 적극 활용

- TPP교섭 결과 미국, 캐나다, 베트남이 일본술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
- 또 미국정부는 일본산 이외의 일본술 (재패니즈사케) 판매를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앞으로 미국산, 중국산 사케를 “일본술”로서 미국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, 일본산의 판매가 쉽도록 시장 환경 조성이 주목적이다.
- 일본 국세청은 국산쌀을 원료로 하고 또, 일본에서 제조된 청주 “일본술”을 지리적 표시(GI)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할 예정이다.
- 지리적 표시로 지정이 되면 TPP외에도 경제연대협정(EPA) 교섭을 통해 일본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본술로 표시되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단속을 요청 할 수가 있게 된다.

■ 보급 및 정착이 과제

- 일본술의 수출액은 작년 115억엔으로 과거 최고치이며, 올해도 작년의 최고치를 웃돌고 있다.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, 홍콩, 한국, 중국이지만 프랑스와인의 수출액 약 1 조엔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실적으로 해외에서 일본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.



- 주조회사들이 가맹하고 있는 “전일본 쌀, 쌀관련 식품수출 촉진협의회”는 올 해 발신력 있는 해외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 등을 주조장에 초대하여 일본술의 정확한 지식과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요리에 어울리는 일본술의 제공도 진행 예정이다.
- 농림수산성의 수출전략으로는 신흥시장의 EU와 대만, 중국, 안정적인 시장의 미국과 홍콩을 중심국으로 지정했다.
- 정부의 TPP관련 정책의 목표는 “일본산 주류의 해외전개를 추진”하고 일본술 이외의 술도 GI보호제도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명칭을 보호 한다.
- TPP교섭 결과, 미국에서는 GI로 지정 “하쿠산청주” “야마나시와인” “이키 소주” “쿠마소주” “사츠마소주” “류큐아와모리”는 일본산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.

- 또한 미국과는 용량의 규제도 완화하여, 현재 소주, 위스키 등 증류주 용량이 750ml로 제한되고 있지만 규제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합의하므로서 4홉들이(720ml) 까지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.

(출처 : 일본농업신문)

■ 시사점

- 한국 전통주 막걸리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의 소비가 축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상기와 같은 일본술의 수출 전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아 되는 부분이 많다.
- 예를 들어, 현재 일본에서도 일본산 막걸리가 유통되어 있으나 중국산, 미국산 일본술 (재패니즈사케) 판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시장 환경 조성도 하나의 방법이다.
- 또한 주류의 소비확대에 빠질 수 없는 외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이 필수적이다. 막걸리는 그 단 맛에 인해 잘 어울리는 요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 있으며,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.